

미·중 무역 분쟁과 농업부문의 영향

이 병 훈 *

1. 미·중 무역 분쟁의 개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은 지금까지도 갈등과 합의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 7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은 15개월 만인 2019년 10월에 이르러 부분합의(스몰딜)에 도달하였으며, 2020년 1월 15일 1단계 합의 결과물인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문은 8개의 장(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 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과 환율, 교역 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 해결, 최종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골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보류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 제3장 농식품 교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 촉진을 위한 5가지 상호 협력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협정문 제6장 교역 확대에서 미국은 대두, 유지종자, 육류, 곡물, 면화 등 217개 주요 농산물 세번(tariff lines)에 한하여 2021년까지 총 32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이행을 조속히 시행하며, 이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국의 합의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위치를 고려하면, 미·중 무역 갈등과 합의가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대(對)중국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 합의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bhleeok@kangwon.ac.kr).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갖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합의문 중 농업부문 5대 협력사항 및 9개 품목(류)별 조치 사항의 배경 및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향후 미·중 간의 역학관계에 따른 이들 조치 사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다룬다.

2. 미·중 무역 분쟁의 의미와 전망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강대국들 사이의 무역·통상이슈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을 넘어서 21세기 패권경쟁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미·중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어 온 자유무역 질서가 미·중 경제전쟁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 시키고 중국의 추가적인 개방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만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 확대를 통한 성장이 중국의 정치적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국이 무역을 통해 체제 전환을 할 것이라는 미국의 예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양국 간 갈등 양상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가 야기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최근 코로나19로 각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 물류위기는 전 세계의 전방위적 생산에 영향을 주며 탈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무역액이 감소하고,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중 무역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

적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의 최근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제 중국과의 거래는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중국이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으면 탈동조화에 무계를 두겠다”, “지금까지 홍콩에 제공하던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정부는 외국기업 책임법을 통해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제재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제는 무역분쟁이 관세·통상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아 중국의 행보에 전방위적으로 주의해야 한다.¹⁾

미·중 신냉전은 향후 세계 경제패권과도 연관되어 있어 장기화가 우려된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패권국이 되고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G2로 부상한 중국은 거대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의지가 강하다. 미·중 경제전쟁의 향방은 절대적인 힘, 전략, 지속가능성, 체제의 탄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미·중 신냉전이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일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면 지금 현재 우위에 있는 국가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위에 있지만,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어 향후 구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미·중 경제전쟁의 핵심 갈등은 협상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경제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다시 양국 간의 다른 경제체제로 인해 무역분쟁이 재발하여 기존 합의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미국의 초강경 압박에 중국은 지구전으로 맞서고 있다.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 강국을 선언한 ‘중국몽’ 달성을 위해 중국은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장벽을 쌓고 차단하면, 중국 스스로 시장이 되고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해 21세기 새로운 패권국이 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미국이 WTO라는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일방적인 힘에 의존하여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은 WTO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몰고 갔지만, 이제는 중국 대 세계의 구도를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이다.²⁾

1)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https://news.kotra.or.kr) (검색일: 2020. 7. 23).

2) “미·중 패권전쟁의 시나리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0357) (검색일: 2020. 0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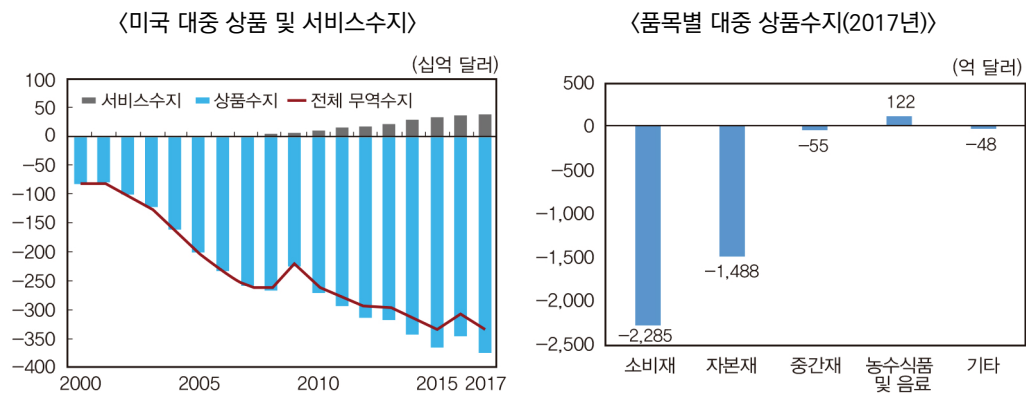
3.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부문 평가

3.1. 배경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 관련 사항은 중국과의 교역 있어서 미국의 전반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상품수지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농산물 부문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1차 합의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래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00~17년 동안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820억 달러에서 3,357억 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역분쟁 발생 이전인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소비재와 자본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농수산물 및 음료 부문은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그림 1).

〈그림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및 상품수지



자료: 한국은행(2018). p.12.

농산물은 미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이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사용해 왔으며 수출국인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무역분쟁 이전 미국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 규모는 캐나다 다음으로 많아 2016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 가까이 수출 실적을 기록하였다.³⁾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의 전체 무역에서의

적자구조를 농산물 시장에서 완화하고자 수입쿼터를 포함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을 요구하였으며,⁴⁾ 같은 해인 2016년 12월 15일, 중국을 WTO에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수입쿼터(TRQ, 저율관세할당)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과도한 농산물 보조금 지급 등 수출제한 혐의로 제소하였다. 이에 2017년 중국도 미국의 행위에 대응하여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DDGS)에 42.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교역대상국의 규제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나타나 있다(표 1).

미국은 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농업보조금, 저율 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환급 및 관련 제도 등의 조치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며, 이들 요인의 완화를 중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미국은 SPS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법,⁵⁾ 축산물 수입금지조치, 생명공학작물 승인 등을 지적하였다.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저위험 식품 수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요구하여 수출 당사국뿐 아니라 중국의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조치이며, 해당 조치가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축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가금육, 쇠고기, 돼지고기 안전성 증명이나 지역 인증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수입요건⁶⁾ 등으로 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생명공학작물 승인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BC)에서 규제에 대한 승인이 보류 중인 제품 수의 지속적 증가가 무역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미국산 알팔파와 옥수수 수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TRQ 및 농업보조금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WTO에 중국을 제소한 바 있으며, 미국은 중국산 상품의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조성주 외, 2019).

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ataweb. 2016년 중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 기준 미국의 대중국 시장 점유율은 21%임.

4) 미국의 월버 로스(Ross)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중국의 공조를 역설함(Yahoo Finance, '16.12).

5)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유제품, 유아용 조제분유, 해산물, 곡물 등 상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시설 및 상품에 관한 등록 요건을 규정함.

6) 수의약품, 성장촉진제, 동물건강 등과 관련된 요건을 말함.

〈표 1〉 2015~19년 비관세장벽(NTB) 보고서의 중국 무역장벽

분류	무역장벽	'15	'16	'17	'18	'19	내용
SPS	식품안전법	○	○	○	○	○	· 수출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 중국이 식품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 가능
	축산물 위생검역조치		○		○	○	· 수입을 특정 수입요건 등으로 시장 접근성 제한
	생명공학작물 승인	○	○	○	○	○	· 생명공학작물 승인 보류와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비동기화 확대는 무역의 불확실성 야기
	원예작물의 시장접근					○	· 미국산 원예작물에 대한 시장접근 승인 요청
수입 규제	농업보조금	○	○	○	○	○	· 중국의 목화, 돼지고기 및 밀, 옥수수, 쌀 등 곡물 가격에 대한 보조금 및 기타 지원조치는 불공정한 정책
	저울관세할당(TRQ) 관리			○	○	○	·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대한 TRQ 적용은 곡물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 제한
	증치세(VAT) 환급 및 관련정책				○		· 세계 옥수수 및 콩 시장을 왜곡하고 불확실성 유발

자료: 조성주 외(2019). p.5.

3.2. 의미

1차 합의문에 명기된 미국의 조치 사항은 중국산 수입경보 해제를 위한 협의 착수, 기술협력의 개시, 식물위생 관련 규제통보 프로세스 작업 완료 등으로 중국의 조치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 사항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으로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입이 상당히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농업협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SPS, TBT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협력이 촉진됨에 따라 양국 간 대립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기술협력(기술이전, 인적 교류 확대 등) 등이 개선될 것이며, 상호 관심 부문인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농업 생산, SPS 정보공유는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 전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양국은 농산물 무역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SPS 조치를 지양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미·중 무역분쟁 발생 초기인 2018년까지 특정무역현안(Specific

7) 살충제 사용 기술 협의, 상호 관심부문에 대한 양국 전문가 소통 촉진 및 정보 공유 강화, 농업과 관련된 SPS 조치 협력, 디지털 기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을 포함함.

Trade Concerns: STC)⁸⁾ 제기 건수를 살펴보면, 총 452건 중 피청구국이 미국인 경우는 45건(10.0%)으로 전체 2위이며, 중국은 30건(6.6%)로 전체 3위를 기록하였다.⁹⁾ 세계 1위가 EU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 국가 1, 2위를 미국과 중국이 기록한 셈이다. 따라서 1차 합의문상 미국과 중국의 SPS 조치 지양 합의는 세계 SPS 제소 건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무역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TRQ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의 농산물 시장 접근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농업 교역시스템의 편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밀, 쌀, 옥수수 TRQ에 대해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협정문의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의 내용에 따라 TRQ 관리에 상호 간 협의해야 한다. 즉, 미국이 2016년 중국을 WTO에 제소한 쌀, 밀, 옥수수 TRQ 운영의 불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으로 중국은 국제표준 및 권고(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라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안전 평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 3년간(2015-17년) 중국 농업생명공학 기술 승인 절차의 예측성 및 투명성 부족으로 발생한 승인 절차 지연으로 미국산 옥수수 등 곡물 수출에 대한 무역 혼란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해오던 미국이 이를 1차 합의문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배종현, 2018).

마지막으로 국내 보조와 관련하여 미·중은 WTO 의무를 존중하며, 국내 보조 관련 통보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9년 2월 29일 WTO에서 발표한 미국의 중국 농산물 국내 보조에 대한 제소 건 최종보고서¹⁰⁾ 이행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농업보조를 WTO의 허용 보조 수준에서 지원해야 하므로 중국이 이와 관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경우 중국 농업 생산구조는 현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적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8) WTO에 통보된 신규 또는 시행 중인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조치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원국은 WTO/SPS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양자 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WTO 제소 등 분쟁 절차 따름.

9) <https://www.koreasps.kr:444/webzine/201902/sub02-01.html>.

10) 미국은 중국이 2012-15년 기간 간 곡물 생산자들에게 지불한 국내보조가 WTO 농업협정 제3조 2항과 제6조 3항 및 제7조 2(b)항에 위배됨을 제소함. 미국은 중국이 동 기간 소맥, 쌀(인디카 및 자포니카), 옥수수 생산자들에게 가격지지 방식으로 지불한 국내보조에 대해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함.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최종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내보조가 WTO 농업협정의 해당 조항에 위배되므로, WTO 농업협정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함. 패널은 분쟁해결기구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중국의 국내보조 관련 조치를 WTO 농업협정문 해당 조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함(어명근, 2019).

한편, 이번 1차 합의문에는 중국이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 가금육, 쇠고기, 살아있는 번식우, 돼지고기, 육가공품, 쌀,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 등 9개 품목(호별)에 대해 미국의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들 9개 품목 중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를 제외한 7개 품목(호별)은 2017년 기준 중국의 대(對)세계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해당하지만, 해당 품목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이들 품목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미국이 수출할 때 애로사항을 겪는 품목군에 속한다(표 2). 따라서 미국은 이들 품목군의 수출 확대를 위해 1차 합의문에 별도의 부속항목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중국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 사태 이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지만,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무역·투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합의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는 30개월령 이하로 한정하였으며, 분쇄육, 기계분리육, 편도선 부위 등은 수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락토파민 잔류허용 기준치에 부합해야 했다. 따라서 1차 합의문에는 2017년 문건에 추가적으로 '소 연령 요건(age requirement)5 해지', '광우병 관련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 도입 금지' 등 미국의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요처로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중국은 급증하는 자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정부는 2015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부터 국내 조류독감 유입 방지 및 국내 가금육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한 중국의 미국산 가금육 수입 재개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중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 급감으로 대체 육류 수요가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및 유아용 조제분유는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 중 하나이며, 낙농품 대부분은 주로 뉴질랜드, 호주, EU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유제품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으며, 2013년 프랑스 다농 뇌물사건, 뉴질랜드, 폰테라 박테리아 검출사건 등으로 인해 수입산 분유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당시 수입산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 리스트에 미국산, 일본산 등이 제외되어 한동안 수입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이후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분유는 각각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중심으로 수입이 집중되었고, 중국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비중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시장접근 개선 품목에 유제품 및 조제분유를 포함시키고, 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의 개선 효과를 토대로 중국 수입농산물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은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동시에 생산국이기도 하다. 작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양돈 사육은 급감했고 심지어 양돈산업 자체가 붕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돈육 가격은 2배까지 상승하였고, 중국 정부는 수입돼지 물량을 대부분 유럽과 브라질로부터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산은 보복관세, 통관 지연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수입 저해조치로 인해 수출 확대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미국산 돼지고기의 시장접근 개선 품목 포함 및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합의는 중국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약 13%대의 미국산 비중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육가공품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육가공품을 시장접근 개선 품목으로 제안한 것은 미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자국 내 타이슨, 스미스필드, JBS 등 세계적인 메이저 육가공업체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로비와 요청을 받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육가공업체 입장에서 최근 식습관이 서구화되어가고 있는 중국의 육가공품 소비시장은 매우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육가공산업의 외연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한 SPS 규범 중 식품안전법, 축산물 위생검역조치의 완화 방침은 미국산 육가공품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양국 간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가 해결되지 않아 미국산 쌀 수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양국은 미국산 쌀 수입에 합의(2017년 7월)는 하였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실제 시장접근은 이루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2월 25개의 미국 쌀 관련 시설이 중국으로 수출하도록 승인 등록되었고, 이어서 G20에서 양국 정상 회의 직후인 7월 약 40t의 미국산 쌀이 최초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중국 수입쌀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001%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 수입쌀시장에 약 50만 톤, 금액으로 연간 약 3억

달러어치 쌀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USDA, 2020.05). 이로 인해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2017년 중국의 호별(HS 4단위)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액

	부류명		세계(A) (천 달러)	중국 대세계 수입 비중	미국(B) (천 달러)	B/A	미국 대세계 수출 비중
		HS 4단위					
1	대두	1201	39,638	37.0%	13,940.60	35.2%	15.6%
2	조제분유	1901	4,474	4.2%	79.99	1.8%	0.8%
3	팜유	1511	3,496	3.3%	0.00	0.0%	0.1%
4	쇠고기	0202	2,992	2.8%	19.94	0.7%	2.0%
5	포도주	2204	2,798	2.6%	81.80	2.9%	1.1%
6	수지박	2301	2,421	2.3%	301.09	12.4%	0.5%
7	돼지고기	0203	2,221	2.1%	285.68	12.9%	3.3%
8	우유와 크림(농축)	0402	2,214	2.1%	83.13	3.8%	1.0%
9	식용설육	0206	2,198	2.0%	873.85	39.8%	1.2%
10	유채씨	1205	2,164	2.0%	0.00	0.0%	0.1%
13	쌀	1006	1,828	1.7%	0.01	0.0%	1.2%
20	가금육	0207	1,032	1.0%	0.00	0.0%	2.6%
24	우유와 크림(비농축)	0401	879	0.8%	0.28	0.0%	0.1%
44	치즈	0406	498	0.5%	60.23	12.1%	1.1%
60	생축우	0102	216	0.2%	0.00	0.0%	0.2%
99	버터	0403	67	0.1%	1.23	1.8%	0.1%
141	소시지와 육가공품	1602	9	0.0%	0.07	0.8%	0.9%
152	소시지	1601	3	0.0%	0.02	0.6%	0.4%

자료: UN Comtrade.

한편, 미국의 시장접근 개선 9개 품목(호별) 중 사료 및 주정박, 애완동물용 사료의 경우도 미국기업들의 중국 수출과 중국 시장 진출을 겨냥한 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사료 생산 국가로 성장하여 2017년 기준 중국 내 사료 생산량은 2억 2161만 톤을 기록한다. 하지만 중국의 사료 수입시장은 국내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편이며, 이는 중국 정부가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해 국가별 품목 제한 및 등록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등 수입 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이다¹¹⁾(이유열, 2019). 미국 사료 제조업체도 역시 중국 당국에 새로운 사료 제품 및

11) 중국 정부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령 제118호, 관련 수출입 검역관리규정〉에 따라 사료

시설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주정박(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DDGS)¹²⁾ 수출업체는 복잡한 제품 승인 절차에 직면하여 수출이 지연돼왔다. 따라서 1단계 협의를 통해 미국 사료업체의 중국 시장 접근을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3. 총평 및 향후 전망

미·중 무역 분쟁의 발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무역적자의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을 요구한 데에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상품수지 부문에서 흑자 부문인 농산물 부문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전략적으로 이번 1차 합의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번 미·중 무역합의문의 농업 관련 사항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비관세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전반적인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양국의 합의 내용이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내 내수 위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부정적인 세계 무역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단계 합의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2,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으나(표 3), 2020년 1분기 기준 이행목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더하여 미·중 분쟁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및 2021년 남은 합의 기간에 1단계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확대 품목에서 중국이 기존 수입국 상품 수입을 감축하고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시점에서 1단계 합의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및 사료 첨가제에 대해 국가별·품목별 등록제도를 시행 중임.

12) 양조 또는 에탄올 제조에 사용된 옥수수의 부산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료 원료로 이용됨(Waldroup et al., 1981).

〈표 3〉 중국의 품목별 추가 대미수입 계획(미·중 1단계 합의 사항)

품목(품목수)	2017년			중국의 대미 추가 수입		
	미국의 대세계 수출	중국		2020	2021	2년 합계
		대미	대세계			
공산물 (321) - 산업기계(86), 전기장비(45), 의약(6), 항공기(1), 수송기기(2), 광학/의료(9), 철강(35), 기타(137), 기타(137)	6,276	77 (9.1)	8,676 (100.0)	329	448	777
농산물 (217) - 대두(2), 육류(12), 곡류(16), 면(3), 기타(184)	1,535	241 (19.3)	1,250 (100.0)	125	195	320
에너지 - LNG(1), 원유(1), 정유제품(7), 석탄(1)	840	68 (3.2)	2,110 (100.0)	185	339	524
서비스 - 지재권 이용료, 여행/관광, 금융/보험, 클라우드, 기타				128	251	379
합계				767	1233	2000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4.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4.1. 수출입 구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양국 간 농산물 수출입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양국의 수출입시장에서 경합하는 다른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호주와 같은 쇠고기 수출국의 수출구조와 우리나라와 같은 쇠고기 수입국의 수입구조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세계 농산물 무역구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고 가격변동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과 2019년 우리나라 수입돼지고기 시장에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 미국산 수입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선을 우리나라 시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로 미국산 돼지고기에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가 적용되어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8년 21만 9천 톤, 2019년 약 23만 7천 톤으로 증가하였고,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52.3%에서 53.1%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대신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축소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고,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호주산 쇠고기 물량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대두 수입량과 점유율도 급증하였다. 이는 중국에서 브라질산 수입량이 증가했지만, 미국산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대두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해당국 수출입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제3국의 수입구조도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 영향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 영향 품목인 대두와 돼지고기는 우리의 주요 수입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가격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두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브라질산 수입확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이 늘어난 바 있다. 중국이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확대할 경우 미국산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합의 이행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영향력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두 수입액은 7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31.5억 달러로 43.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 반면 2019년 최대 수입국이었던 대 브라질 수입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감소했다.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의 톤당 수입 가격을 보면 미국산의 경우 404달러와 403달러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브라질산은 437달러에서 409달러로 하락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대두 수입액은 1억 6,131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억 4,255만 달러 대비 13.2% 증가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억 4,12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다. 수입가격은 톤당 448달러로 전년 동기의 438달러에 비해 상승하였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돼지고기(부산물 포함) 수입액은 2019년 1분기 9.4억 달러에서 2020년 1분기 34.8억 달러로 269.2% 증가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미국산 수입이 같은 기간 0.7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701.5% 증가했다. 수입액 비중도 6.9%에서 14.9%로 8%p 증가해 스페인(19.2%)과 독일(16.2%)에 이어 3위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의 톤당 수입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1,391달러에서 2,495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최대 수입국인 스페인산도 1,854달러에서 3,102달러로 상승했다.

2020년 1분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액은 3억 8,480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4억 5,824만 달러에 비해 16.0% 감소했다. 수입대상국별로 보면 최대 수입국인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1억 3,56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수입가격은 톤당 2,832달러로 전년 동기의 2,590달러에 비해 상승하였다.

쌀의 경우도 1단계 합의 결과 중국의 국내 수입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쌀 생산국이자 수입국 및 소비국으로서 매년 쌀 400만 톤을 수입하는 쌀 순수입국이다.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 시 중국은 쌀 532만 톤을 관세 1%의 TRQ를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쌀 종류별 수입 비중은 장립종과 비장립종 각각 266만 톤씩 균등하게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보복관세가 해제되고 식품 규제 환경이 완화된 미국 쌀이 중국으로 수출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아시아산 장립종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현재 TRQ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중단립종 쌀 중심으로 연간 약 50만 톤씩 3억 달러 수준의 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중국의 국가별 유형별 쌀 수입 실적 현황(2019)

국가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대만	기타	합계
장립종	577,922	496,548	445,472	440,135	224,865	-	68,597	2,253,539
중단립종	25,686	29,708	78,588	38,972	-	48,513	5,157	226,624
합계	603,608	526,256	524,060	479,107	224,865	48,513	73,754	2,480,163
비중	24%	21%	21%	19%	9%	2%	3%	100%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검색일: 2019. 10. 28).

이처럼 중국으로 미국산 쌀 수출이 확대될 경우 미국 내 재고율이 개선되고, 미국산 중단립종 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수입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40만 8천 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으로부터 매우 큰 비중인 13만 2천 톤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금액으로는 2019년 약 1억 1000만 달러이고 한화로는 약 1,28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수입단가 상승 시 수입금액도 증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쌀 가공산업의 수익성과 국내 물가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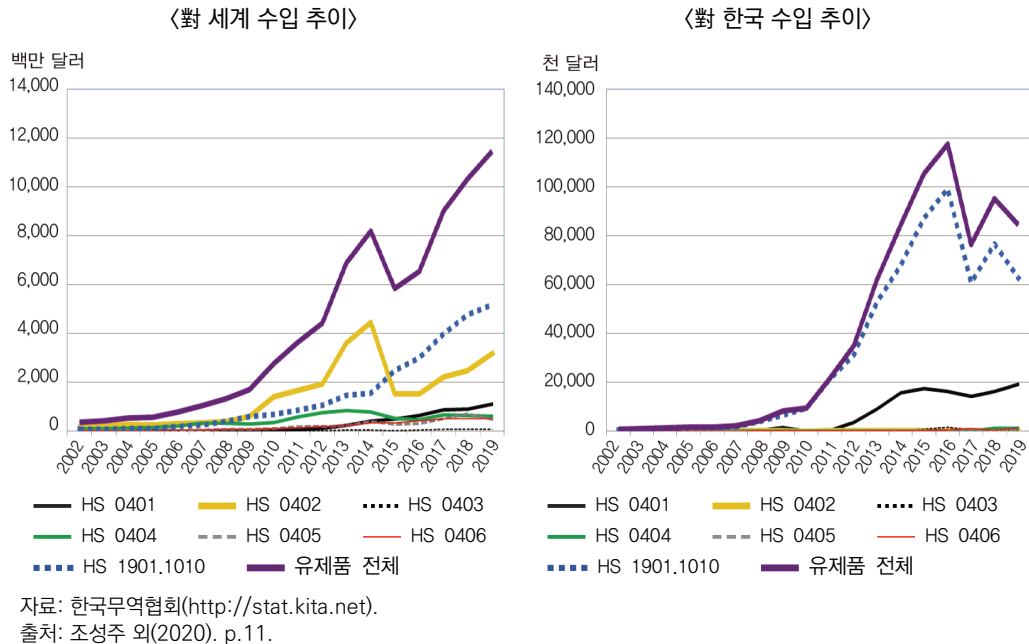
반면, 중국으로부터도 쌀 약 15만 7천 톤을 TRQ물량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쌀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쌀 순수입국, 즉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고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산 쌀 수입이 중국의 부족분 내에서 확대된다고 해도 중국 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중국산 도입가격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3. 대중국 농산물 수출시장 영향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에 의해 중국이 9개 품목(류)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 품목(류)에 따라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9개 품목(류) 중 이에 해당하는 품목(류)은 유제품이다.

최대 수입 품목은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와 분유(HS 0402)로 멜라민 분유 사건으로 인한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산 분유에 대한 불신 경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 세계 품목별 수입액(2017~2019년 평균) 비중을 보면 영유아용 조제분유(HS 1901.1010)가 4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유(HS 0402) 25.4%, 우유(HS 0401) 9.4%, 유장(HS 0404) 6.3%, 버터(HS 0405) 5.4%, 치즈(HS 0406) 5.0%, 밀크알부민(HS 3502.2000) 2.4%, 발효유(HS 0403) 0.5% 순이다.

〈그림 2〉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대 세계 및 대 한국 수입 추이



주로 벌크포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분유의 경우, 국내산 유류(乳類奶類)와 분유 제품에 대한 불신, 관세율 하락, 국내외 가격 차이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최대 수입 품목의 지위를 줄곧 유지했다. 특히 멜라민 분유 사건을 계기로 대폭 증가한 분유 수입량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중국 정부의 TBT 조치(포장, 증명 등) 강화 등으로 2015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65.7% 감소하면서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유제품 수출액은 2002년 69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54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8,463만 달러로 감소했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 영유아용 조제분유가 6,278만 달러로 74.2%, 우유가 1,913만 달러로 22.6%를 차지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영유아용 조제분유와 생우유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각각 1.2%(9위)와 1.7%(7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각각 0.05%(20위), 0.6%(11위)를 차지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은 한국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생우유와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중국의 수입제도개선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중국 수입 유제품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순위(2019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HS 0401(우유)			HS 0402(분유)			HS 0403(발효유)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뉴질랜드	459	41.7	뉴질랜드	2,263	71.2	독일	37,038	63
2	독일	200	18.2	호주	356	11.2	오스트리아	5,143	8.7
3	프랑스	144	13.1	독일	75	2.4	뉴질랜드	4,599	7.8
4	호주	96	8.7	네덜란드	71	2.2	프랑스	4,326	7.4
5	폴란드	49	4.5	프랑스	71	2.2	호주	2,407	4.1
6	영국	41	3.7	아일랜드	43	1.4	스위스	1,960	3.3
7	한국	19	1.7	스페인	41	1.3	스페인	1,223	2.1
8	벨기에	19	1.7	핀란드	38	1.2	미국	783	1.3
9	스페인	18	1.6	우루과이	35	1.1	그리스	318	0.5
10	아일랜드	18	1.6	벨라루스	31	1	아일랜드	261	0.4
합계		1,063	96.5		3,024	95.1		58,058	98.7
순위	HS 0404(유장)			HS 0405(버터)			HS 0406(치즈)		
1	미국	116,624	19.2	뉴질랜드	372,436	79.8	뉴질랜드	284,297	54.5
2	프랑스	109,931	18.1	프랑스	39,135	8.4	호주	71,845	13.8
3	독일	61,763	10.2	벨기에	14,225	3	미국	36,675	7
4	네덜란드	55,572	9.1	네덜란드	11,549	2.5	덴마크	24,791	4.7
5	아일랜드	40,918	6.7	호주	10,705	2.3	프랑스	24,075	4.6
6	벨라루스	28,686	4.7	독일	5,210	1.1	이탈리아	23,391	4.5
7	폴란드	27,322	4.5	아일랜드	2,781	0.6	아일랜드	10,329	2
8	아르헨티나	23,974	3.9	덴마크	2,270	0.5	독일	9,785	1.9
9	덴마크	23,029	3.8	영국	2,110	0.5	네덜란드	6,378	1.2
10	핀란드	19,356	3.2	아르헨티나	1,820	0.4	영국	6,120	1.2
합계		507,175	83.5		462,241	99.1		497,686	95.3
순위	HS 1901.1010(영유아용조제분유)			HS 3501.1000(카세인)			HS 3502.2000(밀크알부민)		
1	네덜란드	1,615,107	31.1	뉴질랜드	36,904	76.1	미국	79,150	25.9
2	뉴질랜드	1,214,248	23.4	아일랜드	4,529	9.3	독일	72,599	23.8
3	아일랜드	771,781	14.9	캐나다	2,906	6	호주	45,797	15
4	독일	402,741	7.8	독일	1,650	3.4	덴마크	44,048	14.4
5	프랑스	377,233	7.3	아르헨티나	1,227	2.5	뉴질랜드	39,305	12.9
6	덴마크	256,580	4.9	미국	486	1	프랑스	12,220	4
7	호주	231,772	4.5	우크라이나	229	0.5	네덜란드	5,038	1.6
8	스위스	97,033	1.9	프랑스	184	0.4	영국	3,167	1
9	한국	62,775	1.2	네덜란드	119	0.2	아르헨티나	1,771	0.6
10	폴란드	38,416	0.7	벨기에	108	0.2	폴란드	1,475	0.5
합계		5,067,686	97.7		48,342	99.6		304,570	99.7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출처: 조성주 외(2020). p.11.

다만,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호 추가관세는 유지되며, 향후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에는 15% 최혜국세율(MFN) + 25% 보복관세, 생우유에는 15% MFN + 25% + 5% 보복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¹³⁾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경우 한국산보다 미국산의 수입단가가 높고, 미국산에 MFN 관세 15%와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은 우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4.4. 시사점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시장접근 농산물 품목 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산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대 중국 수출액이 많은 영유아 조제분유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주력 수출농산물 중 하나이므로 상품 차별화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규모는 작으나 대중국 수출 성장세가 가파른 반려동물용 사료, 쌀과 같은 신흥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산의 품목 점유율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하면, 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2019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사육과 도축 두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돈육 가격 변동 심화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입선의 다변화라든지 양돈 농가의 사육두수 조정을 위한 적정 입식 유도 등 종합적인 수급 및 가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확대는 미국산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수입해온 미국산 대두의 대체재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브라질산 대두가 일부 용도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도입되는 미국산 및 브라질산 대두는 채유용으로써 식용을 생산하는 국내 대두 생산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 가공 및 판매하는 국내 식품업체의 수익성 악화라든지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13) 조성주 외(2020). p.11.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에 따라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 가격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영유아 조제분유, 쌀, 육가공품 등 일부 수출품목들과 국내 수입농산물을 이용하는 국내식품업체와 소비자들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영, 정혜선. 2017.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FOCUS』, 2017년 6호. 한국무역협회.
- 박병광, 2020.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배종현, 2018. 「미국 USTR 보고서에 나타난 한중 기술규제 이슈」. 『TBT Policy Report 008』, 2018년 5호. 국가기술표준원.
- 어명근. 2019.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세계농업』, 2019년 6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유열. 2019. 「중국 가축 사료 및 사료 첨가제산업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 이유진. 2020.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경과 및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2019.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국의 농업부문 무역장벽 현황과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6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주, 오새라, 박수연. 2020. 「미중 무역분쟁 1단계 합의와 농업부문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70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USDA FAS, 2020. 「New to China Market Product Report - Rice」. (https://apps.fas.usda.gov/newgainapi/api/Report/DownloadReportByFileName?fileName=New%20to%20China%20Market%20Product%20Report%20-%20Rice_Guangzhou%20ATO_China%20-%20Peoples%20Republic%20of_06-05-2020)
- USDA, 2020.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ACT SHEE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phase%20one%20agreement/Phase_One_Agreement-Commodity_Fact_Sheet-Rice.pdf)
- Waldroup PW, Owen JA, Ramsey BE, Whelchel DL 1981 The use of high levels of distillers dried grains plus solubles in broiler diets. Poultry Sci 60:1479-1484.